BR6061 고마운 잔소리 17-03-18

저에게는 잔소리를 자주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해주는 친구가 몇 분 있습니다. 모두 나이는 저보다 몇 살씩 어리지만, 그들로부터 자주 듣는 잔소리가 그다지 싫지 않습니다. “허리를 펴세요” “어깨를 벌리고 걸으세요.” 또는” 신발을 끌면서 걷지 마세요.” 등등의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소리가 왜 싫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보니 그들이 만날 때마다 주는 잔소리가 다 저를 위해서 해주는 잔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잔소리를 해주는 친구들은 추호도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나 제 마음을 언짢게 하려는 분들이 절대로 아님을 제가 확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고맙습니다. 제 나이에 앉었다 일어서면 허리가 약간 뻣뻣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반듯하게 펴지지 않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허리를 펴라고 자적해준 친구들의 잔소리가 생각나서 의식적으로 허리를 폅니다. 그런 잔소리는 제 아내가 그녀의 생전에 저에게 자주 했던 잔소리 입니다. 그런 잔소리가 왜 고맙게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 그 때에는 제가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가 저를 위한 잔소리임을 가슴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세싱으로 간 아내에게 뒤늦은 미안함을 느낍니다.

영어에 건설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을 위하여 하는 비판은 Critique라고 하며 개인이나 조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비판은 Criticisim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Criticism은 받는 사람의 기를 꺾지만, Critique를 받는 사람은 좀 더 잘하자는 결심이 생깁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나 긍정적인 비판이 다 내 입장에서 본다면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본인의 의견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다면 그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상심이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평가는 내가 할 것인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두 사람 사이의 교량을 태우지 말라는 충고가 있습니다. 살다보면 언제 아디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알게 된 사람과 혜어질 때에는 유감이나 나뿐 감정 없이 헤어여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대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일 것입니다. 사랑과 돈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편리한 도구이지 그것으로 행복을 살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복잡힌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과 사물 중에서 좋은 점만을 보려고 노력해야 행복할 것입니다. 제대로 장점을 보려면 색안경도 확대경도 필요 없습니다. 역경 중에서도 낙담하지 않도록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닥쳐 오는 피드백을 긍정적인 정보로 변형시켜 받아 드리면 보랍있는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